



≡ 보 ≡

浦項鐵鋼工團 의료보험조합

金世允 대표이사를 찾아서

포항철강공단 하면 세계 굴지의「포항제철」이 군림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철업계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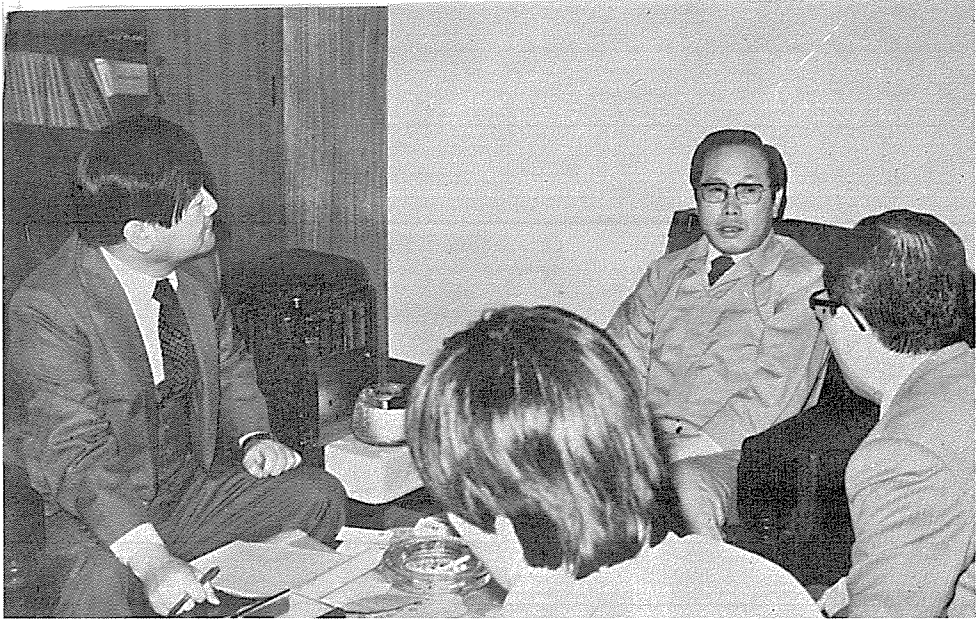
경북 구룡반도라고 하면 해삼 명계의 주산지로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포항의 퇴담밥과 물회는 그맛이 더욱 싱싱한가 보다.

기자는 지난 7월11일, 경북지부 사무국장 金志默씨, 사무과장 李会鳳씨와 트리오프 팀을 이루어 一路

포항행 코스에 올랐다.

경부가도중 경주 포항간 고속도로는 그 영화가 무장했던 옛 왕릉과 함께 찬란한 문화를 재현 하는듯 차창에 스치는 경치가 기자의 가슴에 뿌듯한 무엇을 일게 해준다.

포항시 중심가에 위치한 포항철강공단 의료보험조합 金世允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렀을 때 정오경——金 대표이사가 반가히 맞이한다. 급여과



장 沈圭澤씨는 기생충담당이라서 그런지 실무책임자로서 더욱 은근히 맞는다. 대표이사와 沈과장, 金志默 국장과는 사업상 서로 구면인 듯 스스럼이 없다. 역시 이런데서 사업상 친밀도를 점칠수 있어 경북지부의 열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포항 철강공단 의료보험조합은 포항시를 비롯하여 경주시와 영일군의 5개군, 즉 2시, 6개군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여 일하고 있었다. 사업장수 283개와 피보험자수와 피부양자수 합계 86,991명, 168개 기관을 요양취급기관으로 하는 경북 굴지의 철강공단 의료보험조합이었다.

金世允 대표이사는 광산지대 공업지대등에서 몸매 백 강인한 체력과 설득력으로 부하들을 거느리는 명지휘관이었다.

아픈곳을 감싸주고 설움을 달래주는

인정있는 면이 있는가하면 한번 결단을 내린 이상 불굴의 투지로 부하들을 독려하는 성품을 지닌 金대표이사였다.

그는 힘주어 이야기한다.

「지난 해 12월16, 17일 양일동안 전 사업장 의료보험 실무 담당자 교육때 「기생충박멸사업과 성인병 검진」에 대해 강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보험자들이 성인병예방에 대한 관심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검사도 당초 계획량이 1000명 이었으나 실제 2,628명을 실시하여 262.8%의 실적을 올린것입니다.」

성인병 관리에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은 현대병으로 부각된 각종 만성병질환이 현대인에게 그만큼 많아 졌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健協의 발족을 진심으로 시의에 맞는

차사라고 이야기 한다. 앞으로 병력 카드만 만들게 아니라 예산이 허락하는 한 건강관리카드도 만들어 요점사 등 각종 성인병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생충 검사사업도 활발하여 81년도에 102%, 82년도에도 102%의 실적 을 올려 우수 조합으로 표창받기도 했다면서 피보험자 교육시에도 급여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기생충 박멸홍보사업을 강화, 스스로 참여의식을 겨양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홍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각 사업장 실무 부서장 방문 설득, 독려, 라디오(MBC) 대담방송 전개, 실무자교육 홍보, 춘계사업이 미진한 사업장에는 추계 겸편 재실시, 피보험자 및 부양자에게 개별 통지의 성의를 보여 기생충검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金대표이사는 공단조합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의사회 회장단, 사업장 실무자, 피보험자, 조합측과 4자 회담을 가져 서로의 이해를 돕고 했어요 또한 金, 토요일에는 입원 환자 실태조사차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를 위로하고 시정 사항등을 체크하고 있지요 효과가 많아요 부수적으로 부정진료도 체크하여 연1000만원이란 큰 돈의 부정도 적발하여 2중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하 ”」金대표이사는 金국장에게 2월 초순의 건강

관리사업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즉석순회 집단검진을 부탁하기도 한다.

견합이 소수한 「건강1호」검진차를 배정해서 순회검사를 요청한 것이다.

넓은 포항 지역을 카바하려면 순회차량이 절대 필요하다는것.

포항 철강공단도 순회 검진차량이 절대 필요하다면서 관계 요로에서는 차량없는 설움을 알려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사실말이지만 현대사회에선 기동력이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조합의 속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였다.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포항철강공단의 앞날에 축복을 드리면서 기자는 역시 선진 중공업단지다운 포항이구나를 새삼 느끼고 있었다.

